

## 운영에의 대비



조봉구 (주)연합정보기술/대표이사

**지** 난날의 정보시스템 발전사를 보면 너무도 빨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물론이고 어플리케이션 및 개발방법론에도 현격한 변화가 있어 왔다.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컴포넌트의 수리는 옛말이고 지금은 아예 키트 단위로 교환하거나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 버리는 일도 예사가 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어떤가? 프로그램 로직을 업무에 맞춰 일일이 설계하고 코딩하던 것이 이제는 업무에 맞추는 ERP가 등장하더니 급기야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개발환경 및 개발방법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운영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개발의 완료가 가까워짐에 즈음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 기간의 보증기간을 거치고 나면 모든 유지보수의 책임은 운영자의 몫이 된다. 이 과정에서 운영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존 운영

---

약력 : • 화콤코리아(주) • 동양맥주(주) • (주)오리콤 • 두산종합기술원 •  
현재 (주)연합정보기술 대표이사

인력에게 추가 업무 부담이 생기게 마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충원이 어렵거나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개발한 업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 차후 개발할 업무에 운영을 추가시키는 모순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당초 정보전략계획의 입안 시에 개발에만 치중하고 운영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대개의 경우 정보전략계획의 입안 시 당장 닥쳐 올 시스템 개발에는 비교적 세밀하게 자원의 할당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개발 이후, 즉 시간 여유가 있는 운영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정확하지 않은 예측으로 인하여 어렵사리 개발한 시스템의 생명 주기를 단축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크게는 계획이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TCO(통합보유비용) 즉 시스템의 생명주기 동안의 보유비용을 좀 더 개발과 운영에 안분하여 생명주기를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정보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기술의 생명주기가 나날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지보수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움으로써 응용업무의 생명주기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